

『제21회 정순왕후 선발대회 서류심사평』

제21회 정순왕후 선발대회에 총 10개 시·도에서 39명의 지원자가 서류를 접수하였습니다. 4인으로 구성된 정순왕후 예비심사단이 신중한 논의 끝에 16명의 제21대 예비 정순왕후를 선발하였습니다.

정순왕후 선발대회의 대회 취지에 맞추어, 정순왕후의 삶과 정신을 발전적으로 계승할 수 있는 역사적 소양과 진취성을 겸비한 참가자 중심으로 본선 참가자를 가렸습니다.

서류심사로 선발된 16명의 본선참가자는 정순왕후라는 인물에 대한 자신만의 유의미한 해석을 통해 그 시절 ‘미망인’으로 박제된 정순왕후라는 인물을 현대적 의의가 있는 여성으로서 발견해 내고자 하는 성찰적 자세를 보였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습니다.

한편 올해로 21주년을 맞이한 정순왕후 선발대회는 여러 시군에서 많은 참가자가 접수되어 정순왕후라는 인물에 대한 높은 관심과 전국적으로 높아진 선발대회의 위상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주관단체인 영월군여성단체협의회와 영월문화재단은 이러한 성원을 보여주신 모든 지원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전합니다.

영월군여성단체협의회장 / 영월문화재단 이사장